

더불어 생각하며

여성노동자에 차별없는 일터를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 88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 수만명이 루트거스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와 안전한 작업환경, 그리고 성, 인종, 재산,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역사적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여 여성운동가들은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는 이 날을 여성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들이 하나 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날로, 그리고 남녀가 공존하는 사회를 희망하는 축제의 날로 기리고 있다.

가내하청등 여성 고용상황 날로 불안정

세계대전때에는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전쟁반대와 물가안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군부독재정권아래서는 정권타도투쟁을 전개했고, 81년에는 5만명의 이란여성들이 머리와 얼굴을 싸매는 관습에 반대하는 데모를 갖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날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한다.

90년대 아시아권에서는 유급출산휴가,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등한 권리보장, 국제노동기구 조항 준수,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 등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직운동을 통해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지만,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성별 역할분업구조로 인해 여성들은 안정되게 일할 권리, 능력을 개발할 권리,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곧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향상을 나타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60%가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20% 남짓한 여성만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기업내 직업훈련에 참여한 여성비율은 16%에 불과한



이 철 순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며,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10%도 안된다.

그런데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간제·파견제근로, 가내하청 등 여성의 고용상황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완전한 고용은 안정된 삶의 일차적인 조건이다. 저임금의 단순인력이나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규정받으면서 취업의 길만 확대되는 것은 여성들의 안정된 삶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제, 파견제의 독

자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평·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세계여성이 하나되는 이 날, 세계화의 지름길은 국제노동기구 조약의 비준과 즉각적인 이행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조약, 모성보호조약, 남녀가족부양자의 평등대우조약을 97년 이후에나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논리에 걸맞지 않다고 본다.

모성보호비용과 보육비용의 사회부담,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의 획기적인 확대, 고용할당제, 직장안 성희롱의 규제와 노조활동의 자유는 앞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를 평생직장으로 가꿔가는 데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평원칙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돼야

낮과 밤 맞교대에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내일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술벤트중독으로 배란과 임신의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뚜렷한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연 기업규제완화를 위해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계속 존속돼야 하는가. 여성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